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디지털 시대에 학생들의 독서 활동을 강화하고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독서 캠페인 ‘북웨이브(BookWave)’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독서 캠페인 ‘북웨이브’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학생들의 문해력 향상을 위해 가족과 하루 10분씩 함께 책을 읽는 ‘북 웨이브(BookWave) 캠페인’을 실시한다. ‘책 읽는 나' ‘함께 읽는 가족' ‘독서 공동체, 서울' 3단계로 구성, 기존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하던 토론 등 방과 후나 교과 시간 내 독서 프로그램을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독서 캠페인으로 확대했다. 학생, 가족, 마을이 함께 어우러져 독서물결을 만들어내는 독서 문화의 활성화가 목표다. 학생들은 ‘책 읽는 나’에서 △아침 책 산책(읽기) △주제를 정해 책을 완성하는 ‘서울학생 첫 책 쓰기’ △우리 아이 첫 독서학교 △작은도서관의 그림책 읽기 릴레이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 가족과 함께 하루 10분씩 총 100일간 독서 습관을 만드는 ‘온 가족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에 동참해 완주하면 도서관 로비 명예의 전당 등에 가족의 이름을 게시한다.  
  
  
  
  
  
  
  
 청년취업사관학교, 강서캠퍼스 4기 교육생 모집 중소기업 지원기관 서울경제진흥원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새싹(SeSAC, Seoul Software ACademy) 강서캠퍼스 DT과정 4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디지털마케팅 1개 분야 2개 과정 70명 규모로 운영되며, 만 15살 이상 서울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생은 기초지식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하며 교육은 오는 6월부터 3개월간 운영된다. 오는 19일까지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신청 가능하다.